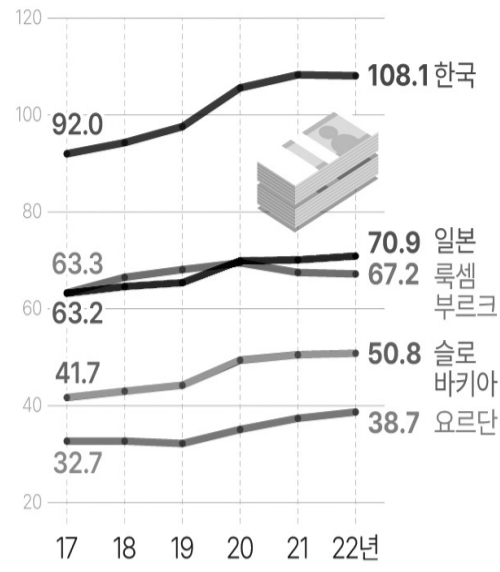


한국 가계부채 GDP 넘어섰다...5년간 92→108%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 추이

증가폭 기준 상위 5개국, GDP 대비, 단위: %



연립뉴스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증가율 16.2%p 전세계 1위...기업부채 비중 147→173% 증가폭 2위

'가계+기업' 민간부채 초고속 상승...정부부채도 GDP 대비 54.3%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규모로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비교가능한 26개국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까지 급증하면서 민간부채 비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중앙정부 역시 부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글로벌 고금리의 장기화가 예고되면서 한국경제 3대 주체 모두 리스크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모습이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92.0%)보다는 16.2%포인트 증가했다.

민간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두자릿수대 증가폭이다.

한국에 이어 슬로바키아 9.1%포인트, 일본 7.7%포인트, 요르단 6.0%포인트, 룩셈부르크 3.9%포인트, 칠레 2.8%포인트, 스위스 2.5%포인트, 독일 2.3%포인트 순이었다.

미국(79.5→77.0%)을 비롯해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등은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절대 수준도 스위스(130.6%)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2017년에는 26개국 중 7위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저금리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구입 시스템과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부채도 가계부채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불어

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로 26.6%포인트 증가했다. 룩셈부르크(38.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증가폭이다.

IMF가 한국의 기업부채 데이터를 처음 집계한 2008년 152.6%를 시작으로 2009년 160.0%로 늘었다가, 2010-2016년 150%대 초중반에서 등락했다. 2017년 147.0%로 낮아졌다가 2018년 149.8%, 2019년 154.9%, 2020년 164.8%, 2021년 166.8% 등으로 가파른 상승향 곡선을 그렸다.

상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기업부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협업대출 능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의 부채 증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GDP 대비 민간부채(가계+기업) 비율 역시 초고속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민간부채의 비율은 2017년 238.9%에서 지난해 281.7%로 42.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데이

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전체 11위였지만, 가파른 상승세로 매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2위로 올라섰다.

경제의 버팀목 격인 중앙정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직면해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4.3%를 기록했다. 2017년 40.1%보다 14.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정부부채 증가폭은 비교가능한 87개 가운데 16 번째를 기록했다.

절대 비율에서는 GDP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261.3%)·이탈리아(144.4%)·미국(121.4%)·프랑스(111.7%)·캐나다(106.6%)·영국(101.4%)·독일(66.5%) 등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다만 달러,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같은 기축통화 보유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데다, 우리 정부 부채의 대외채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립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추석 중동서 '현장경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이집트 중부 베니수에프주(卍)에 위치한 삼성전자 TV·모바일 공장을 찾아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 회장은 추석 연휴인 지난 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집트를 찾아 현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신입사원 333명 공개 채용

11일까지 원서 접수

한국농어촌공사는 3일 '2023년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와 인원은 5급(일반직) 165명, 6급(기차직) 48명, 7급(무기계약직) 120명이다.

5급 모집 분야는 ▲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 ▲환경, 6급은 ▲토목 ▲기계 ▲전기 ▲건축, 7급의 경우 ▲사무원 ▲기술원 등이다.

올해 농어촌공사 신입사원 공채는 학력과 전공, 성별, 연령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농어촌공사는 지속적으로 사회평평성을 고려한 채용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올해도 장애인전형과 보훈전형을 별도 실시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한다.

원서 접수는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이며, 채용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4일 실시하며 면접을 거쳐 올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채용정보란의 공고문과 채용 홈페이지(http://krc.recruiton.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상공인 2명 중 1명 경기 악화 전망...응답자 80%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300명 대상 물가상승 부담 설문

소상공인 대부분은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두 명 중 한 명은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26일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사업에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57.3%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은

37.3%에 달하는 등 94.6%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장 운영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9.7%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8.7%, '좋아질 것'은 11.6%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80%는 올 들어 국내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많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 매출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다. 외식 물가 또한 지난 8월까지 27개월 연속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고물가에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5.66%포인트다. /김민석 기자 mskim@

"치킨값 또 오르나"...공급 감소에 닭고기 가격 강세

겨울 AI 확산도 변수도

공급량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닭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닭고기 도매가격은 1kg에 3172원으로 1년 전 같은 날의 2665원과 비교해 19.0% 올랐다.

전날이 추석 연휴 직전일인 상황을 고려해 작년 추석 연휴 직전일(9월 8일)의 도매가격(2987원)과 비교해도 6.2% 높은 수준이다.

올해 월별 도매가격도 지난해보다 비싼 편이다. 지난해 1~8월 월평균 도매가격은 1kg에 3236원~3750원이었으나 올해 동기에는 3363원~

4166원이다.

도매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매가격도 지난해 1~8월 월평균 5327원~6229원에서 올해 동기에는 5794원~6439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닭고기 가격 상승은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사료값 등 생산비가 상승하자 농가에서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도 닭고기값 변동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보통 10월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진다. AI가 확산하면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계란 가격이 오르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